

# 2024 뉴스빅데이터 해커톤 아이디어 기획서

※ 선택한 참가주제에 적합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3쪽 이내 분량으로 작성

(3쪽 분량 초과 시, 심사 없이 실격 처리)

※ 기본 폰트: 맑은 고딕, 11pt / 줄간격: 130% / 정렬: 왼쪽 정렬(본문 기준)

(미준수 시, 심사 없이 실격 처리)

※ 표 안의 파란색 설명은 작성 후 삭제 요망

아이디어명	유귀농(YOUGUINONG)
팀명	미니동(민희동)
아이디어 발상 동기	<p>우리 팀은 농촌의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귀농을 장려하고자 빅카인즈 AI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유귀농(YOUGUINONG)’을 생각하였다.</p> <p>지역 소멸은 특정 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 활동이 점차 중단되고 궁극적으로 소멸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현상은 주로 지방 및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며, 우리나라의 많은 지방과 농촌에서도 그 심각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p> <p>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농촌 정의 재정립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404개 읍·면 가운데 726개 읍·면이 농촌소멸 위험 또는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정부에서는 귀농자 규제 해제, 귀농 지원 정책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하지만, 은퇴 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응답 비율은 10년 전인 2014년보다 5.4% 감소한 37.2%로 집계되었다.</p> <p>이 같은 귀농 수요 감소 원인에는 귀농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이 존재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때문에 우리 팀은 먼저 진입 장벽이 높은 귀농을 한 눈에 이해하기 쉽고 친숙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돕는 귀농 정보 서비스가 있다면 이러한 감소 추세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p> <p>더불어 우리나라 인구의 18.6%를 차지하는 954만 명의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올해부터 앞으로 11년 동안 은퇴 연령에 진입하기 시작한다. 귀농을 주도하는 연령층은 60대로, 은퇴연령에 진입하는 이 세대들을 타겟으로 귀농을 장려하는 것이 성공한다면, 지역 소멸을 막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우리 농산품의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유귀농’ 서비스의 공급은 이런 미래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p> <p>‘유귀농(YOUGUINONG)’은 귀농에 대한 막막함과 농업 경험 부족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법, 혜택을 빅카인즈 AI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해주며, 이용자의 성향과 역량에 따라 귀농 지역을 선정하고 비교하여 추천한다. 또한, 적합한 작물을 제안하는 효과적인 맞춤형 귀농 도우미 공공서비스이다.</p>

아이디어 내용	<p><b>1. 어서오세요, 귀농 지원의 숲으로</b> : 귀농 지원 혜택이 가장 풍부한 지역을 순위로 보여주는 기능이다. 지역별로 지원 정책을 다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어느 지역이 가장 귀농 지원 혜택이 좋은지 시각화하여 볼 수 있음. 지역을 눌렀을 때, 축약된 지원 정책 관련 내용을 보여준다.</p> <p><b>2. 속닥속닥 요즘 이 작물이 최고야~</b> : 제철 농산물 또는 유행을 탄 농산물과 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이다.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 인기 농산물, 제철 농산물과 그 정보를 제시한다.</p> <p><b>3. 소 잃기 전에 법 공부</b> : 농업법이 개정될 때마다, 개정법에 대해 쉽게 알려주는 기능이다. 농부들은 농업법의 개정에 대한 인식이 낮고, 법률 용어에 대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쉬운 용어로 개정법 기사의 내용을 전달한다.</p> <p><b>4. 요즘 농부들의 HOT ISSUE</b> : 귀농 키워드에서 가장 조회순이 높았던 뉴스들 모아 보여주는 기능이다. 여기에는 농부들의 팁, 주의점과 같은 블로그 성격의 글들도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농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 그 외의 생활 정보와 같은 정보들이 공유된다.</p> <p><b>5. 퍼스널팜</b> : 이용자의 정보(성향, 역량)를 간단한 설문을 통해 기재하면, 이용자에 맞춤형 농작물을 추천해 주는 기능이다. 설문에는 노동 강도, 자본 규모, 농사 경험, 기후 선호도와 같은 항목들이 포함된다.</p>
구현계획	<p><b>1. 어서오세요, 귀농 지원의 숲으로</b> "귀농 지원 정책", "귀농 지원 혜택", "귀농 지원금" 등의 키워드들을 이용하여 빅카인즈 API에서 뉴스 데이터를 지역별로 가져온다. 또한 이들 키워드가 포함된 문장을 추출하여 "정책", "혜택", "지원금" 등에 따라 2차 분류한다. 이때 TF-IDF 기반으로 텍스트 가중치를 계산하여 핵심 문장을 선별한다. 이렇게 전처리한 데이터에 "토지 저금리 대출" 등 정책 관련 단어를 포함할 경우 가중치를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별로 매겨진 점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설정한다.</p> <p><b>2. 속닥속닥 요즘 이 작물이 최고야~</b> 빅카인즈 API '작물', '종자' 키워드를 포함한 뉴스 데이터를 수집한다. 빅카인즈의 키워드 트렌드 기능을 이용하여, 긍정적 키워드와 함께 사용된 빈도가 높은 작물과 종자를 필터링한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키워드의 빈도가 높은 작물의 그래프를 보여줌으로써 트렌드 시각화를 한다.</p> <p><b>3. 소 잃기 전에 법 공부</b> 빅카인즈 API를 이용해 귀농 관련 법률 개정 기사 데이터를 수집하고, 국어사전 API와 연동하여 법률 용어를 쉽게 설명한 뉴스로 다시 작성하여 배포하는 기능이다.</p> <p><b>4. 요즘 농부들의 HOT ISSUE</b> 빅카인즈 API로 귀농, 농업 관련 주제의 뉴스 중 조회수 상위 기사들을 수집한다. 이때 기사에서의 찬반 토론 주제나 주요 의견들을 요약하여 간단하게 보여준다.</p> <p><b>5. 퍼스널팜</b> 빅카인즈 API를 이용하여 농산물 관련 뉴스 데이터에서 농산물의 기본 데이터(재배 조건, 병충해 저항성, 예상 수익성)를 수집하고 재배 난이도에 따라 점수를 매긴다. 그리고 사용자의 성향(기후 선호도, 노동 강도, 소득 목표)와 역량(농업 경험, 자본 규모) 등에 기반한 간단한 설문을 통해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한다. 이후 사용자의 성향과 역량을 분석하여 이전에 뉴스 빅데이터에서 수집한 기본 데이터</p>

	와 종합하여 종합 점수를 매기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추천한다.
기대효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귀농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생성하고 귀농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을 해결할 수 있다.</li> <li>2.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li> <li>3. 지역의 특성 및 특산품 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li> <li>4. 기존 지역 신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독자의 관심을 끌어내어 지역 신문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li> <li>5. 인터넷을 능숙하게 다루기 어려운 중장년 층에게 직관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li> <li>6. 공공 서비스에서 지역별 순위를 매김으로써, 지역 간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li> <li>7. 귀농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귀농의 외로움 또한 완화할 수 있다.</li> <li>8.. 고용부, 지자체, 농기업과 협업하면 효과가 배가 되어 더욱 강화될 것이다.</li> </ol>
기타사항	